

의복과 립스틱의 동일색상 톤 변화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평가

정수진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강사

The Image Evaluation for Tone Variation in Same Color of Clothing and Lipstick of the Clothing Wearers

Su-Jin Jeo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7. 5. 1. 접수; 2007. 6. 25.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keup, clothing tone and clothing style on wearer's with same color coordination of lipstick and clothing.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7-point scale semantic). The stimuli were 64 color pictures were manipulated by computer simulation. This experiment design was $2 \times 2 \times 4 \times 4$ factorial design. The stimuli were a set of eyeshadow color(brown), clothing style (formal style of Jacket / skirt and casual style of cardigan / pants), lipstick and clothing color (red and orange), lipstick tone(vivid, light, dull and dark), clothing tone(vivid, light, dull and dark).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384 female undergraduates living in Gyeongsangnam-do.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at a lecture hall at the time between 10 a.m. and 3 p.m. in May 200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rogram. Factor analysis, 4-way ANOVA, t-test, and Duncan test were used as analysis methods.

Image factors according to variation of clothing style, clothing color, and makeup color are composed of 4 different dimensions (visibility, attractiveness, tenderness, and stability). In dimension of the visibility, the image was perceived to be glowing and luxurious regardless of lipstick tone and lipstick color in the case of the vivid tone clothing.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clothing style, clothing color and tone, makeup color composed of eyeshadow color, lipstick color and tone,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images for a clothing wearer were expressed diversely, were shown differently in image dimensions, and could be produced to different images.

The analysis data for image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makeup and clothing color, tone, and style thus provide basic material for image consulting or color coordination.

Key Words: Same color(동일색상), Clothing color(의복색), Lipstick color(립스틱색), Clothing style(의복스타일), Image evaluation(이미지 평가)

Corresponding author ; Su-Jin Jeong

Tel. +82-10-7142-6881, Fax. +82-2-760-4484

E-mail : jini5980@hanmail.net

I. 서론

좋은 이미지는 상대방에게 호감과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의복과 외모는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 형성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화 된 사회 속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미에 대한 가치기준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의복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요소 즉,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과의 조화가 필요한데, 색채를 이용한 이미지 연출은 가장 우선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색은 하나의 색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위의 색과 함께 지각되므로 토털 코디네이션에서 조화로운 색채의 선택은 미적표현의 중요한 부분이다. 메이크업 색상은 외모를 변화시키고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의복의 색과 조화되었을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이미지의 창출이 가능하므로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화로운 색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에 관련된 이미지 연구들(윤소영, 2001; 이연희, 2001; 송미영, 박옥련, 이영주, 2005; 정수진, 강경자, 2006)에서 메이크업으로 인해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의복의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중 의복형태 및 색채와 관련된 연구(차미승, 1992; 이주현, 강혜원, 1995; 이주현, 조공호, 1995; 이용휘, 강경자, 1997; 이혜숙, 김재숙, 1998; Winakor, Navarro, 1987; Thurston, Lennon, Clayton, 1990)등에서 연구자에 따라 사용된 변수들에 의한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의복의 형태 및 색상을 톤 조합과 관련시킨 이미지 연구(加藤雪技, 1982; 石塚純子, 加藤雪技, 檀山藤子, 1987; 유금화, 2002; 김윤경, 강경자, 2003; 최수경, 강경자, 2003; 강경자 임지영, 2005)등에서 의복 색상의 톤 변화에 따라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의복과 메이크업의 각각에 대한 색과 톤에 따른 이미지 연구 및 얼

굴색과 의복색에 관련된 연구(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박화순, 2002)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얼굴에 행해지는 색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과 톤 조합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이들 조합에 따른 이미지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과 메이크업의 다양한 배색에 의한 이미지를 한 번에 다루기가 곤란하여 의복과 립스틱 색상을 동일색상 배색으로 통제하여 립스틱과 동일한 색상의 의복 착용 시 의복과 립스틱 톤과 의복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원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단서들에 의한 이미지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미지는 형태, 재질감, 색상, 크기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색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색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간생활 모든 것이 색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색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색채 이미지는 경험에 의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연관이 이루어지는 색채연상이나 서로 다른 두 가지 사항의 색의 유사성에 의해 관련되는 색채상징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 색채 각각이 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배색에 의해 매우 다른 이미지를 준다.¹⁾ 배색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만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주는데 두 색이 조합되어 어울릴 때 색채이미지가 강해지며, 표현범위가 넓어져 두 색 이상의 조합에서 주는 이미지는 단색에서 주는 이미지보다 감정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 또한 색상이 지니는 톤에 의해서 같은 색상이라도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Kobayashi(1981)³⁾는 색의 삼속성을 단순화하여 색과 톤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한 이미지 측정에서 색이미지는 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와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였다.

메이크업 색상과 인상형성과 관련된 연구로 윤소영(2001)⁴⁾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이 진할수록 매력성은 떨어지지만 여성다움의 인식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이연희(2001)⁵⁾의 트렌드에 따른 색채화장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색채화장을 하지 않은 베이직 트렌드를 가장 지성적이고 온화하며 성숙한 화장으로, 입술 화장에 대한 이미지 지각에서 주황색을 가장 지성적이고 온화하며, 필분홍과 주황색은 어려 보이고, 빨강색은 가장 독특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송미영 외(2005)⁶⁾은 얼굴의 형태적 특성인 얼굴형, 눈썹, 눈의 형태, 입술의 형태적 특성 및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 연구에서 얼굴의 형태적 특성에 근거하여 메이크업으로 얼굴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아이새도 색, 립스틱 색상 및 톤의 코디네이션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2006)⁷⁾에서 메이크업 색상에 따른 인상 차원과 각 단서들의 영향을 밝혀 메이크업은 색상과 톤 의해서 얼굴 이미지가 다르게 창출해 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정옥 외(1995)⁸⁾는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 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동일한 인물에 의복색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후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가차원에서는 무채색이, 활동차원에서는 유채색이 더 높게 나타나 의복색 변화에 따라 동일 디자인의 의복이라도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다. 박화순(2002)⁹⁾의 연구에서 개인색채 유형을 따뜻한 형, 차가운 형,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의복 색 경향을 분석한 결과, 어울리는 의복색은 색의 온도감에 의한 특징보다 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의복의 색상 및 형태에 따른 이미지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Winakor와 Navarro(1987)¹⁰⁾는 의복 색의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 종류(드레스, 슈트, 스포츠웨어)에 따라 착용자에 대한 호감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의복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종류는 더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Francois와 Evans(1987)¹¹⁾는 대인지각시 의복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의복스타일보다 의복명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¹²⁾은 빨강옷은 화려하고 현시성이 높아

두드러진 인상을 주고, 유채색은 무채색보다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명희, 강승희(1998)¹³⁾는 재킷색에 따른 인상연구에서 빨강 재킷은 능력 있고 젊어보이며, 흰색이나 회색 재킷보다 호의적이고 여성적으로 지각하였다. 이주현, 강혜원(1995)¹⁴⁾의 연구에서 검정색 드레스 착용자는 품위 차원에 영향을 미쳐 가장 사무적이고 나이든 사람으로, 빨간색 드레스 착용자는 주의집중성 차원에 영향을 미쳐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山野清一郎 외(1980)¹⁵⁾는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의복의 구성선 보다는 색채효과가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加藤雪技(1982)¹⁶⁾는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피복형태와 색채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형태보다 색채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으며, 그 중 역량과 따뜻함의 인자는 색채가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石塚純子 외(1987)¹⁷⁾는 각종 디자인에 의한 착장 이미지에서 평가요인은 형태, 색상, 톤이, 기능성 요인은 주로 형태가, 경량감 요인은 형태와 톤이, 따뜻함 요인은 색상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윤경, 강경자(2003)¹⁸⁾는 의복스타일별 지각차는 무채색보다 유채색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의복스타일 보다 의복색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원피스 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와 폭의 변화에 따른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수경, 강경자(2003)¹⁹⁾의 연구에서 색상과 톤은 모든 인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색상과 톤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규명하였다.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복의 색상과 치마, 저고리의 톤 조합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 젊음·활동성과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에서는 색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매력성 차원에서는 치마 톤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색상이나 톤을 다르게 조합하였을 때 조합정도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이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과 톤의 코디네이션 방법에 따라라도 이미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메이크업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색조 화장품인 립스틱은 색 뿐만 아니라 톤에 따라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며 의상의 색과

공통된 요소를 지닌 색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이미지에 통일감과 조화를 줄 수 있으므로, 의복색과 조화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립스틱과 의복의 색상을 동일색상으로 한정하여 톤을 변화시켜 조합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 의한 이미지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메이크업을 한 20대 여성의 의복 착용 전신사진으로 얼굴과 체형이 한국인 표준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위한 표준형 얼굴 모델과 의복 착용을 위한 표준체형 모델을 각각 따로 선정하였다.

메이크업 모델 선정을 위해 J 대학교 여대생 58명의 얼굴을 직접 계측한 결과와 조용진(1999)²¹⁾이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 기준(233.38mm, 얼굴길이 194.05mm, 이마의 가로폭 120.66mm)을 참고로 평가집단(의류학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모델을 선정하였고, 의복 착용을 위한 표준체형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J 대학교 여대생의 키와 몸무게를 계측한 평균치와 사이즈코리아에서 발표한 제5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의 20대 표준자료(키:159.7, 몸무게: 52.9)²²⁾를 참고로 평가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이상적인 체형에 근접하는 1명의 모델을 최종 선정하였다.

아이새도 색은 본 연구자의 사전조사와 선행 연구를 통해 선정되었다. 메이크업 선호색에 관한 여대생 89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아이새도 색의 선호도가 브라운, 핑크, 보라, 파랑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색채가 갖는 속성 중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난색과 중성색인 갈색, 보라, 파랑을 선정하여 선행연구²³⁾에서 실험연구 하였으나 한색인 파랑 아이새도는 얼굴이미지 평가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계절의 영향에 많이 좌우되는 색상으로 간주되어 제외시켰다. 다양한 아이새도 색을 사용한 자극물 구성을 통해 비교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다양한 변수에 의한 자극물 제작과 조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립스틱과 의복색의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새도 색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브라운 계열로 한정시켰다. 립스틱 색상은 선행연구^{24),25),26)}들을 참고로 립스틱 색상 중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빨강을 기본색상으로, 갈색 아이새도와 유사색인 주황을 유사색상으로 선정하여 조합시켰다. 즉, 빨강립스틱과 주황립스틱을 사용하여 각 립스틱 색상을 채도는 중간으로 고정하고 명도를 변화시켜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립스틱 색을 선정하였다. 피부색은 선정된 모델의 피부색과 한국인 표준 피부색²⁷⁾을 참고로 하여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색상을 선정하였고 눈썹은 회갈색으로, 아이라인은 검정색으로 하였으며, 눈썹과 입술의 형태는 표준형으로 하고 메이크업의 다른 변인들은 통제하였다. 또한 자극물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은 앞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뒤에서 묶은 형으로 하였다.

의복은 의복유형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28),29)}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멀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각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복유형을 패션잡지에서 3가지씩 선택하여 의류학전공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평가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스타일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포멀 스타일은 테일러드 칼라의 기본형 재킷에 무릎아래 길이의 타이트 스커트 차림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카디건에 팬츠 차림으로 통제하였다. 의복의 색은 립스틱 색상을 기준으로 동일색상으로 선정하고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으로 변화시켰다. 자극물의 립스틱과 의복에 사용한 색상과 톤은 한국표준색표집³⁰⁾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며 <표1>과 같다.

자극물 제작을 위해 선정된 아이새도 색상으로 먼저 눈화장을 하고 입술색과 톤을 변화시켜 가면서 화장을 시켜 각각 Digital Camera로 촬영

<표1>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 (red)	5R4/14	5R8/6	5R5/6	5R2/6
주황 (orange)	5YR6/14	5YR8/4	5YR5/4	5YR2/4

하였고, 선정된 포멀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을 착용하게 한 후 촬영하여 Photoshop 7.0 program에 이미지를 입력시켜 메이크업한 얼굴사진과 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뎀핑시켰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색표집의 색상에 준하여 수정한 후 자극물 사진은 메이크업한 얼굴에 의복을 착용한 전신사진으로 8×16으로 하여 Epson R210에서 프린트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립스틱과 의복 색상 2가지, 립스틱 톤 4가지, 의복스타일 2가지, 의복 톤 4가지를 조합하여 만든 총 64개로 하였다. 자극물의 조작분류 방법은 <표2>와 같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립스틱과 의복 색상 2가지(빨강, 주황), 립스틱 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의복스타일 2가지(포멀, 캐주얼), 의복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원 요인설계 및 피험자간(between subject)설계로 이루어졌다. 4가지 독립변인에 의해 조합된 총 64개의 자극

물을 32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무선배치 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메이크업과 의복색,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를 파악할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31),32),33),34)}들에서 사용된 형용사쌍 이외에 의류학전공 3, 4학년으로 구성된 40명의 학생들에게 자극물 사진을 보여주고 자유기술식으로 표기하게 한 후 메이크업과 의복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쌍을 추가하여 총 42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인상평가 어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집단(의류학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검토케 한 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7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치가 낮은 문항과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외한 29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메이크업 된 자극물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극단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여대생

<표2> 자극물의 조작분류

립스틱 색상	의복스타일		포멀 (F)				캐주얼 (C)			
	의복톤	립스틱톤	비비드 (V)	라이트 (L)	덜 (D)	다크 (K)	비비드 (V)	라이트 (L)	덜 (D)	다크 (K)
빨강 (R)	비비드(v)		FVRv	FLRv	FDRv	FKRv	CVRv	CLRv	CDRv	CKRv
	라이트(l)		FVRl	FLRl	FDRl	FKRl	CVRl	CLRl	CDRl	CKRl
	덜(d)		FVRd	FLRd	FDRd	FKRd	CVRd	CLRd	CDRd	CKRd
	다크(k)		FVRk	FLRk	FDRk	FKRk	CVRk	CLRk	CDRk	CKRk
주황 (O)	비비드(v)		FVOv	FLOv	FDOv	FKOv	CVOv	CLOv	CDOv	CKOv
	라이트(l)		FVOl	FLOl	FDOl	FKOl	CVOl	CLOl	CDOl	CKOl
	덜(d)		FVOd	FLOd	FDOd	FKOd	CVOd	CLOd	CDOd	CKOd
	다크(k)		FVOk	FLOk	FDOk	FKOk	CVOk	CLOk	CDOk	CKOk

〈표3〉 메이크업 색상과 의복색,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차원

	요인1 현시성	요인2 매력성	요인3 온유성	요인4 안정성	공통성 (h ²)
강렬한-은은한	.843	-.125	-.041	-.081	.734
강한-약한	.823	-.062	-.156	-.001	.705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768	-.094	.281	-.091	.686
대담한-소심한	.758	.071	.110	-.088	.600
요염한-청순한	.713	-.016	-.047	-.094	.519
독특한-평범한	.712	-.034	.231	-.158	.586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704	.254	.195	.006	.598
화려한-수수한	.686	.052	.462	-.140	.707
개성있는-개성없는	.558	.247	.391	-.127	.542
세련된-촌스러운	.132	.802	.203	.131	.720
호감이 가는-호감이 가지 않는	-.024	.784	.307	.100	.720
좋아하는-싫어하는	-.090	.773	.268	.051	.679
멋있는-멋없는	.104	.765	.060	.090	.608
보기 좋은-보기 싫은	-.129	.750	.143	.390	.751
매력있는-매력없는	.311	.726	.182	.111	.669
아름다운-추한	-.007	.655	.160	.378	.599
자연스런-어색한	-.133	.610	.183	.317	.524
분위기 있는-분위기 없는	-.041	.561	.070	.401	.482
밝은-어두운	.209	.091	.794	.089	.691
화사한-칙칙한	.354	.222	.722	.121	.710
발랄한-점잖은	.334	.172	.684	-.139	.629
부드러운-딱딱한	-.246	.317	.635	.181	.597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072	.409	.616	-.093	.561
명랑한-명랑하지 않은	.362	.334	.604	-.094	.615
감성적인-이성적인	-.038	.111	.524	.152	.312
깨끗한-지저분한	-.047	.219	.088	.777	.661
안정된-불안정한	-.294	.318	-.051	.701	.681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257	.197	-.182	.700	.629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은	.004	.235	.293	.651	.564
고유치	5.648	5.529	4.077	2.822	18.076
전체 변량의 %	19.477	19.067	14.059	9.733	62.336
공통 변량의 %	31.245	30.587	22.554	15.614	100.000

3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류학과, 피부미용과 등 관련 전공자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06년 3월~4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

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메이크업 색상, 의복스타

일, 의복톤에 따른 이미지 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도출된 이미지 요인별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 및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차원의 요인분석

립스틱 색상과 톤 및 립스틱과 동일색상의 의복색에 톤과 의복스타일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64개의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해 29쌍의 형용사 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 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아이겐 값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4개 요인으로 묶이어서 메이크업 색상 변화와 의복스타일 및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는 현시성, 매력성, 온유성, 안정성의 4개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29쌍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 = .86$ 으로 용어들은 내적일관성 있게 평가되었고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91, .91, .84, .78로 나타났다.

요인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9.5%로 나타났다, 강렬한-은은한, 강한-약한, 눈에 띄는-눈에 띄지않은, 대담한-소심한, 요염한-청순한, 독특한-평범한,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화려한-수수한, 개성있는-개성없는 의 9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이라 하였다. 현시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정혜선, 강경자(2004)³⁵의 인상차원 중 주의집중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연희(2001)³⁶의 독특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2는 세련된-촌스러운, 호감이가는-호감이가지 않는, 좋아하는-싫어하는, 멋있는-멋없는, 보기좋은-보기싫은, 매력있는-매력없는, 아름다운-추한, 자연스런-어색한, 분위기있는-분위기없는 의 9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9.1%로 현시성 차원의 설명력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연희(2001)³⁷, 김윤경, 강경자(2003)³⁸의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메이크업의 색상 변화에 따른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2006)³⁹의 메이크업의 인상차원에서는 매력성과 품위성을 나타내는 인자가 묶이어서 매력·품위성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나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합에 따른 이미지는 차이를 보여 메이크업의 이미지와 메이크업과 의복이 조합된 이미지의 차원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인3은 밝은-어두운, 화사한-칙칙한, 발랄한-점잖은, 부드러운-딱딱한,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명랑한-명랑하지않은, 감성적인-이성적인의 7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14.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2006)⁴⁰의 얼굴이미지 차원은 귀염성과 부드러움 차원으로 분리되어 도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함께 묶여 도출되어 얼굴 이미지와 메이크업한 의복착용자의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윤경, 강경자(2003)⁴¹, 송미영 외(2005)⁴²의 온유성 요인, 이주현, 조공호(1995)⁴³의 부드러움 요인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4는 깨끗한-지저분한, 안정된-불안정한, 단정한-단정하지않은,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않은의 4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안정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9.7%로 나타났다. 안정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윤소영(2001)⁴⁴, 정혜선, 강경자(2004)⁴⁵의 품위성 요인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강렬하고 눈에 띄며 대담하고 요염하고 독특하며 섹시하고 화려하며 개성적으로 지각됨을 의미하며, 매력성 요인에서는 세련되고 호감이 가고 좋아하고 멋있고 보기 좋고 매력있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게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온유성 요인에서는 밝고 화사하고 발랄하고 부드럽고 어려보이고 명랑하고 감성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정성 요인에서는 깨끗하고 안정되고 단정하며 여성스럽게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4개의 이미지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3%로 나타났고, 안정성 요인을 제외한 현시성, 매력성, 온유성 요인은 비슷한 비율을

보여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변화에 따라 하나의 이미지 차원에 두드러진 설명력을 보이기도 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의복과 립스틱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 따른 이미지 차이

1) 빨강색 의복과 립스틱의 톤 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

비비드 빨강 립스틱의 의복톤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차이를 <표4>에서 살펴보면, 현시성과 온유성 차원에서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의복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 의복톤과 립스틱 톤이 비비드로 동일한 톤 조합일 경우는 포멀과 캐주얼 스타일 모두 강렬하고 대담하고 섹시하며 화려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스타일보다 비비드 톤 빨강의 색채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현

시적인 이미지가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의복톤이 라이트와 다크 톤일 경우는 은은하고 평범하고 수수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톤이 덜 톤일 경우는 포멀 스타일은 강하고 대담하며 독특한 이미지로, 캐주얼 스타일은 약하고 평범하며 수수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복톤이 라이트와 덜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세련되고 보기 좋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이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경우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의복톤이 덜 톤일 경우 캐주얼 스타일일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 밝고 화사하고 발랄하며 어려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톤이 어둡고 탁한 톤인 다크 톤과 덜 톤의 포멀 스타일일 경우는 어둡고 나이들어 보이며 딱딱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톤의 조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라이트 빨강 립스틱의 의복톤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차이를 <표5>에서 살펴보면, 현시

<표4> 비비드톤 빨강 립스틱일 때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 요인	빨강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현시성	1.25 ^a	1.65 ^a	-2.032	-.48 ^b	-.22 ^b	-.745	.11 ^b	-.19 ^b	.794	-.23 ^b	-.40 ^b	.678	12.874 ^{***}	18.974 ^{***}
매력성	-.41	-.46	.105	.25	.12	.276	.22	.23	-.005	.23	-.36	1.729	1.111	1.030
온유성	.13 ^b	.49 ^{ab}	-1.243	.86 ^a	1.03 ^a	-.529	-.30 ^b	.18 ^b	-1.705	-1.17 ^c	-.54 ^c	-2.026	13.944 ^{***}	9.836 ^{***}
안정성	.44	-.19	1.328	.41	.76	-.799	.09	-.10	.397	.33	-.47	2.098	.293	2.501

* p < .05, ** p < .01, *** p < .001

<표5> 라이트 톤 빨강 립스틱일 때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 요인	빨강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현시성	.27 ^a	1.30 ^a	-2.623 [*]	-.90 ^b	-1.02 ^b	.502	-.45 ^{ab}	-.63 ^b	.615	-.34 ^{ab}	-.41 ^b	.209	4.151 [*]	20.965 ^{***}
매력성	-.37	-.29	-1.58	-.09	.06	-.415	-.59	-.23	-1.378	-.15	.30	-1.041	.563	1.229
온유성	.30 ^a	.82 ^a	-1.818	.74 ^a	.81 ^a	-.233	-.37 ^b	.22 ^{ab}	-2.014	-.70 ^b	-.33 ^b	-1.157	9.196 ^{***}	6.807 ^{***}
안정성	-.59	-.81	.519	.09	.11	-.054	.41	.18	.541	.17	-.16	.690	1.812	2.011

* p < .05, ** p < .01, *** p < .001

<표6> 덜 톤 빨강 립스틱일 때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 요인	빨강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현시성	1.19 ^a	.90 ^a	.782	-.97 ^c	-1.40 ^c	2.134 [*]	-.50 ^{bc}	-.55 ^b	.160	-.25 ^b	-.54 ^b	1.270	25.500 ^{***}	19.044 ^{***}
매력성	-.13	-.31	.427	-.22	.24	-1.240	-.23	.25	-1.158	-.43	.65	-2.584 [*]	.209	1.615
온유성	.00 ^{ab}	.33 ^b	-1.093	.50 ^a	1.31 ^a	-2.890 ^{**}	-.51 ^b	.12 ^b	-2.969 ^{**}	-1.14 ^c	-.84 ^c	-1.278	13.598 ^{***}	26.389 ^{***}
안정성	.23	-.51 ^b	1.639	.83	.47 ^a	1.113	.70	-.36 ^b	2.905 ^{**}	.60	-.32 ^v	2.761 [*]	.885	3.603 [*]

* p < .05, ** p < .01, *** p < .001

성과 온유성 차원에서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의복톤이 비비드 톤일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타나 강렬하고 대담하며 독특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스타일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캐주얼 스타일일 때 더 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복톤이 라이트, 덜, 다크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은은하고 소심하며 청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이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밝고 화사하며 부드럽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의복톤이 덜 톤이고 포멀스타일인 경우와 다크 톤의 포멀, 캐주얼 스타일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어둡고 딱딱하며 젊잖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덜 톤 빨강 립스틱의 의복톤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차이를 <표6>에서 살펴보면, 현시성

과 온유성 차원의 포멀, 캐주얼 스타일과 안정성 차원의 캐주얼 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립스틱 톤이 비비드와 라이트 톤인 경우와 같이 의복톤이 비비드인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라이트, 덜, 다크 톤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립스틱 톤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의복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라이트 톤의 의복일 경우는 의복스타일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캐주얼 스타일일 때 가장 은은하고 약해보이며 청순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의복톤이 다크 톤일 경우 의복스타일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캐주얼 스타일일 때 세련되고 호감이 가고 멋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동일한 톤의 의복과 립스틱을 사용하더라도 의복스타일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립스틱 톤이 비비드, 라이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복톤이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때 긍정적으로

<표7> 다크 톤 빨강 립스틱일 때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 요인	빨강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현시성	1.03 ^a	1.38 ^a	-1.119	-.57 ^c	-.57 ^b	-.001	.23 ^b	-.37 ^b	2.075	-.29 ^{bc}	-.11 ^b	-.515	10.159 ^{***}	16.479 ^{***}
매력성	-.25	-.43 ^c	.398	-.21	-.09 ^{bc}	-.276	.18 ^{ab}	.58	-1.157	.17	.83 ^a	-1.945	.609	4.784 ^{**}
온유성	-.12 ^{ab}	.56 ^a	-2.061	.12 ^a	.49 ^a	-.851	-.64 ^{bc}	.12 ^a	-2.476 [*]	-1.16 ^c	-.87 ^b	-.986	7.584 ^{***}	4.798 ^{**}
안정성	-.30	-.43	.324	.62	.13	1.166	.37	.50	-.304	.33	-.45	2.545 [*]	1.837	2.805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나 밝고 화사하며 발랄하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의복톤이 라이트일 경우는 의복스타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복톤이 다크 톤인 경우는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어둡고 점잖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톤이 덜 톤인 경우는 의복스타일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캐주얼 스타일을 더욱 밝고 화사하며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안정성 차원에서는 캐주얼 스타일일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의복톤이 라이트 톤의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 깨끗하고 안정되며 단정한 이미지로, 비비드, 덜, 다크 톤의 캐주얼 스타일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복톤이 덜과 다크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포멀 스타일을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캐주얼 스타일은 지지분하고 불안정하며 단정하지 않고 여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의복 스타일 간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 빨강 립스틱의 의복톤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표7>에서 살펴보면, 현시성과 온유성 차원의 포멀, 캐주얼 스타일과 매력성 차원의 캐주얼 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 의복톤이 비비드일 경우와 덜 톤의 포멀 스타일일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 강렬하고 대담하며 독특한 것으로 지각되었고, 의복톤이 라이트와 다크 톤과 덜 톤의 캐주얼 스타일일 경우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캐주얼 스타일일 때 의복톤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경우는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덜과 다크 톤 의복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 세련되고 보기

좋고 매력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 다크 톤 의복을 제외하고는 밝고 화사하고 발랄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포멀스타일의 경우는 라이트 톤 의복을 제외하고는 다크>덜>비비드 톤 순으로 낮게 지각되어 어둡고 딱딱하며 점잖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특히 의복톤이 덜 톤의 경우에는 의복스타일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캐주얼 스타일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안정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복톤이 다크 톤일 경우 의복스타일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포멀 스타일일 때 더욱 깨끗하고 안정되고 단정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2) 주황색 의복과 립스틱의 톤 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

비비드 톤 주황 립스틱의 의복톤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차이를 <표8>에서 살펴보면, 현시성과 온유성 차원에서 포멀, 캐주얼 스타일 및 안정성 차원에서 포멀 스타일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 의복톤이 비비드 톤일 경우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강렬하고 대담하며 독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의복톤이 라이트, 덜, 다크 톤일 경우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덜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캐주얼스타일일 때 가장 은은하고 수수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이 라이트 톤일 경우에 의복 스타일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캐주얼 스타

<표8> 비비드 톤 주황 립스틱일 때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 요인	주 황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현시성	.88 ^a	.93 ^a	-1.48	-.42 ^b	-.57 ^{bc}	.495	-.33 ^b	-.94 ^c	2.156 ^e	-.48 ^b	-.08 ^b	-1.456	10.194 ^{***}	13.481 ^{***}
매력성	-.41	.37	-1.433	.04	.97	-2.102 [*]	.11	.50	-.793	.35	.32	.093	1.354	.682
온유성	.95 ^a	.98 ^a	-.078	.72 ^a	.96 ^a	-.590	-.44 ^b	-.28 ^b	-.600	-1.21 ^c	-1.06 ^c	-.489	19.679 ^{***}	23.049 ^{***}
안정성	-.64 ^b	-.16	-1.509	.37 ^a	.53	-.406	.39 ^a	.29	.272	.50 ^a	-.05	1.365	3.643 [*]	1.673

* p < .05, ** p < .01, *** p < .001

<표9> 라이트 톤 주황 립스틱일 때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 요인	주 황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현시성	.10 ^a	.06 ^a	.085	-1.21 ^b	-1.07 ^b	-.582	-.75 ^b	-.80 ^b	.240	-.65 ^b	-.67 ^b	.082	7.528 ^{***}	4.930 ^{**}
매력성	-.24	-.55 ^b	.684	-.04	.62 ^a	-2.005	-.41	-.03 ^{ab}	-1.183	-.15	.19 ^{ab}	-.953	.327	3.721 [*]
온유성	.76 ^a	.83 ^a	-.203	.22 ^a	.98 ^a	-2.087	-.64 ^b	-.87 ^b	.739	-.87 ^b	-.73 ^b	-.561	13.317 ^{***}	16.899 ^{***}
안정성	-.63	-.73	.250	.38	.01	.813	-.24	-.50	.659	.17	-.52	1.746	2.106	1.147

* p < .05, ** p < .01, *** p < .001

<표10> 덜 톤 주황 립스틱일 때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 요인	주 황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현시성	.33 ^a	.12 ^a	.683	-.82 ^c	-1.12 ^c	1.054	-.68 ^{bc}	-.63 ^{bc}	-.229	-.14 ^{ab}	-.35 ^{ab}	.771	7.422 ^{***}	7.102 ^{***}
매력성	-.09	-.28 ^b	.383	-.09	.87 ^a	-3.141 ^{**}	.13	1.13 ^a	-3.119 ^{**}	.41	.57 ^a	-.417	.533	7.477 ^{***}
온유성	.57 ^a	.78 ^a	-.803	-.12 ^b	.66 ^a	-2.358 [*]	-.41 ^b	-.06 ^b	-1.538	-1.37 ^c	-.71 ^c	-2.728 [*]	22.601 ^{***}	11.670 ^{***}
안정성	.36	-.12	1.367	.71	.63	.191	.10	.19	-.293	.74	-.12	2.063	1.285	1.770

* p < .05, ** p < .01, *** p < .001

일의 경우에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이 비비드, 라이트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밝고 화사하며 발랄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덜, 다크 톤일 경우 특히 다크 톤일 때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의복톤의 영향이 온유성 차원의 이미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정성 차원에서는 비비드 톤 의복을 제외한 라이트, 덜, 다크 톤의 포멀 스타일일 때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라이트 주황 립스틱의 의복톤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차이를 <표9>에서 살펴보면, 현시성과 온유성 차원의 포멀, 캐주얼 스타일 및 매력성 차원에서 캐주얼 스타일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다른 립스틱 톤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복톤이 비비드일 때 긍정적으로 라이트, 덜, 다크 톤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의복스타일이나 립스틱 톤의 영향보다 의복톤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립스틱과 동일한 톤의

캐주얼 스타일일 때 가장 세련되고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립스틱과 의복이 주황 라이트 톤의 캐주얼 스타일을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비비드, 라이트 톤 의복의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밝고 화사하며 발랄하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덜과 다크 톤 의복은 어둡고 칙칙하며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의복톤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덜 톤 주황 립스틱의 의복톤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차이를 <표10>에서 살펴보면, 현시성과 온유성 차원의 포멀, 캐주얼 스타일 및 매력성 차원의 캐주얼 스타일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의 영향으로 비비드 톤일 경우 현시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매력성 차원에서 덜>라이트>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 순으로 세련되고 멋있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특히 립스틱 톤과 의복톤이 동일한 주황 덜 톤으로 배색 되었을 경우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의복톤이

〈표11〉 다크 톤 주황 립스틱일 때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 요인	주 황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현시성	.68 ^a	.74 ^a	-.261	-.33 ^b	-1.08 ^b	2.401 ^a	-.42 ^b	-.61 ^b	.855	-.19 ^b	-.83 ^b	2.192 [*]	5.875 ^{**}	24.851 ^{***}
매력성	.39	.35	.115	.31	-.20	1.576	-.21	-.05	-.469	.02	.25	-.569	1.248	.903
온유성	.87 ^a	1.19 ^a	-1.182	-.47 ^b	-.21 ^b	-.912	-.48 ^b	-.75 ^c	1.003	-.95 ^b	-.70 ^{bc}	-.930	15.128 ^{***}	28.801 ^{***}
안정성	-.54	-.70 ^b	.605	.14	-.63 ^b	1.606	.06	-.41 ^{ab}	1.909	.04	.31 ^a	-.622	1.855	3.009 [*]

* p < .05, ** p < .01, *** p < .001

라이트와 덜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포멀 스타일보다 캐주얼 스타일을 더 세련되고 호감이 가고 보기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이 비비드이면 긍정적으로 의복톤이 덜과 다크 톤이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의복톤이 라이트 톤일 경우에 의복스타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캐주얼 스타일일 경우 밝고 화사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평가하였고, 의복톤이 다크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포멀 스타일일 때 가장 어둡고 딱딱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다크 톤 주황 립스틱의 의복톤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차이를 <표11>에서 살펴보면, 현시성과 온유성 차원 및 안정성 차원의 캐주얼 스타일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다른 립스틱 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복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의복톤이 비비드 톤일 경우 비비드 톤의 색채이미지의 영향으로 현시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 의복톤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의복톤이 라이트, 다크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캐주얼 스타일일 때 더욱 은은하고 청순하며 평범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온유성 차원에서는 의복톤이 비비드 톤일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라이트, 덜, 다크 톤일 경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어둡고 딱딱하며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정성 차원에서는 다크 톤의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 깨끗하고 단정한 것으로, 비비드>라이트>덜 톤 캐주얼 스타일 순으로 단정하지 않고 여성스럽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 및 톤과 의복스타일의 코디네이션에 따라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고, 동일한 메이크업이라도 의복의 색상 및 톤과 의복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다. 선행연구(2006)⁴⁶⁾의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메이크업한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및 이미지는 차이를 보여 메이크업 및 의복 단서들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지각 시 코디네이션 상태에 따라 상호관련성에 의해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메이크업과 의복의 코디네이션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토털 코디네이션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복과 립스틱을 동일색상으로 통제하여 톤에 변화를 준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차원별 이미지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총 64개의 자극물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현시성, 매력성, 온유성, 안정성의 4개 차원으로 도출하였으며, 립스틱과 의복의 색상 및 톤, 의복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규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톤 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이미지 차원별로 살펴보면 현시성 차원에서 립스틱 색상 및 톤의 변화에 관계없이 의복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복톤이 비비드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 및 립스틱 색상과 톤에 관계없이 모두 강렬하고 대담

하고 화려한 이미지로 나타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의복색상의 톤인 선명하고 강렬한 비비드 톤의 색채이미지가 의복착용자의 현시적인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빨강 덜 톤 포멀스타일과 비비드, 다크 톤 빨강 립스틱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라이트, 덜, 다크 톤 빨강과 주황 의복은 메이크업 색상의 조합에 관계없이 은은하고 청순하며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시적인 이미지는 의복 톤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매력성 차원에서 립스틱 및 의복의 색상과 톤, 의복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보면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와 의복스타일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는 덜 톤 빨강 립스틱과 다크 톤 의복의 조합일 때 의복스타일 간 차이를 보여 캐주얼 스타일일 때 세련되고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색 아이세도에 라이트 톤 주황 립스틱과 라이트와 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의 조합, 덜 톤 주황 립스틱과 라이트 톤 캐주얼 스타일의 조합 및 덜, 다크 톤 의복이 조합될 때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온유성 차원에서 립스틱 및 의복의 색상과 톤, 의복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펴보면 빨강과 주황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조합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톤 조합 중 비비드, 라이트 톤 의복과 덜 톤 캐주얼 스타일은 립스틱의 톤 변화에 관계없이 밝고 화사하며 부드럽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덜 톤 포멀 스타일과 다크 톤 의복은 어둡고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주황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톤 조합 중 의복톤이 비비드 톤인 경우는 긍정적으로, 의복톤이 덜과 다크 톤인 경우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어둡고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립스틱과 의복의 색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의복톤이 밝고 선명하거나 밝은색 의복일 경우는 화사하고 발랄하고 부드럽고 감성적인 이미지로, 어둡고 탁한 톤은 온유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톤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안정성 차원에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과 톤, 의복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살

펴보면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조합에서는 립스틱 톤에 관계없이 라이트 톤 의복, 덜, 다크 톤 포멀 스타일일 때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의복톤에 관계없이 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의복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덜 톤 빨강 립스틱과 덜, 다크 톤 의복, 다크 톤 빨강 립스틱과 다크 톤 의복은 의복스타일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포멀스타일은 깨끗하고 단정하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캐주얼 스타일은 단정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동일한 메이크업이라도 의복스타일의 코디네이션에 따라 안정성 이미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주황 비비드 립스틱과 라이트, 덜, 다크 톤의 포멀 스타일, 주황 다크 톤 립스틱과 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의 조합은 깨끗하고 단정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2.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톤 조합에 따른 메이크업한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빨강색 의복과 립스틱을 톤 변화에 따라 코디네이션 시킬 경우 립스틱 톤에 관계없이 의복톤이 비비드 톤이면 대체로 강렬하고 대담하며 발랄하고 명랑한 이미지로, 라이트 톤 의복은 은은하고 밝고 화사하며 부드럽고 어려보이며 깨끗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덜 톤 포멀스타일은 어둡고 딱딱한 이미지로, 캐주얼 스타일은 밝고 화사한 이미지로 지각되는 차이를 보였으며, 다크 톤 의복은 평범하고 딱딱하며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립스틱 톤이 덜 톤일 경우는 라이트 톤 캐주얼 스타일과 조합되면 깨끗하고 단정한 것으로, 비비드, 덜, 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과 조합되면 불안정하고 단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는 차이를 보였다. 립스틱 톤이 다크 톤일 경우 덜, 다크 톤 의복은 매력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캐주얼스타일일 때 의복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황색 의복과 립스틱을 톤 변화에 따라 코디네이션 시킬 경우 립스틱 톤에 관계없이 비비드 톤 주황 의복을 착용하면 강렬하고 화려하며 발랄하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이트 톤 주황 의복은 립스틱 톤에 관계없이 은은하고 수수하고, 비비드, 라이트 톤 립스틱과 조합되면 밝고 화사한 이미지로, 다크 톤 립스틱과 조합

되면 딱딱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톤이 라이트 톤으로 동일하더라도 립스틱 톤에 따라 온유성 이미지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덜 톤 주황 립스틱을 바를 경우 포멀 스타일 이면 딱딱하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이면 밝고 화사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의복스타일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덜, 다크 톤 의복은 립스틱 톤 변화에 관계없이 청순하고 수수하며 젊잖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비비드 톤 주황 립스틱은 동일 톤인 비비드 톤 주황 의복과 조합되면 불안정하고 단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라이트, 덜, 다크 톤 포멀 스타일과 조합되면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라이트 톤 주황 립스틱과 라이트, 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과의 조합 및 덜 톤 주황 립스틱과 라이트, 덜, 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의 조합일 때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다크 톤 주황 립스틱은 동일한 톤인 다크 톤 주황 의복과 조합될 때 깨끗하고 단정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아이새도 색, 립스틱 색상과 톤으로 구성된 메이크업과 립스틱 색상을 기준으로 의복색을 동일색상으로 선정하고 톤과 의복스타일에 변화를 준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이미지 차원별 차이를 보여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합되는 단서들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연출될 수 있음이 규명되었다. 특히 의복스타일보다는 의복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의복색상의 톤은 메이크업한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창출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단서로 드러났다. 동일한 의복톤이라도 아이새도 색, 립스틱 색상과 톤에 따라 이미지 차이를 보여 메이크업 한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평가에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요소들은 각각의 정보가 갖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코디네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평가 시 의복에 의한 영향도 중요하지만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시사하여 얼굴이미지는 대인관계에서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본 Hassin과 Trope(2000)⁴⁷⁾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따라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화로운 배색은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서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 및 의복스타일에 의한 코디네이션을 통해 착용자의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였으므로 후속연구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메이크업 색상과 의복의 색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 차이를 다각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의복색과 메이크업 색상과의 조화 및 이미지 차이를 밝히고자 하며 헤어와 액세서리와와의 조화를 고려한 이미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피험자를 20대 여대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자극물 선정 시 다양한 의복단서를 다루지 못하였고 헤어스타일 및 관련 변수를 제한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토털 코디네이션에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과 톤 및 의복스타일의 조합에 따라 이미지를 분석한 자료는 각 이미지에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배색방법을 제시하여 컬러 코디네이션 및 이미지 컨설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oltzschue, 윤희수 역 (1999). *색채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미술문화, pp.145-157.
- 2) 박은주 (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pp.278-279.
- 3) Kobayashi, S. (1981). The Aim and Method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16(2), pp.93-106.
- 4)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연희 (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유행 예측색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송미영, 박옥련, 이영주 (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pp.1-11.

- 7) 정수진, 강경자 (2006). 아이새도 색상과 립스틱 색상 및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5), pp.69-78.
- 8)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pp.167-180.
- 9) 박화순 (2002).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색 경향. *복식* 52(6), pp.15-24.
- 10) Winakor, G., &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pp.40-48.
- 11) Francis, S. K., Evans, P.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model on pers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4, pp.383-390.
- 12)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체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1111-1211.
- 14)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9(6), pp.984-994
- 15) 山野清一郎, 尹勝純子, 牧眞理子 (1980). イメ-ジ用語による シルエットの分類(4).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1(8).
- 16) 加勝雪枝 (1982). ブラウスの 衿の イメ-ヅに反ばす形態反で色の効果.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3(4), pp.159-164.
- 17) 石塚純子, 加勝雪枝, 梶山藤子(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 着裝イメ-ヅ. *日本家政學會誌* 38(4). pp.321-332.
- 18)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 색, 톤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 pp.395-406.
- 19)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4), pp.459-473.
- 20) 강경자, 임지영 (2005). 톤 온 톤 배색이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3(5), pp.804-818.
- 21)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사계절출판사, pp.62-63.
- 22)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자료 (2004) 사이즈코리아. 자료검색일 2006. 1. 30. 자료출처 <http://sizekorea.ats.go.kr>.
- 23) 정수진, 강경자 (2006). Op.cit., pp.69-78.
- 24) 원명심, 이명숙 (1998). 한국여대생의 의복 및 화장품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 색채학회지* 10(6), pp.47-67.
- 25) 신향선 (2002).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메이크업, 헤어, 의상 색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6.
- 26) 김영인, 주미영, 이현주, 김석정 (2004). 국내외 메이크업 브랜드 색조화장품의 색채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2), pp.91-101.
- 27) 최영훈 (1990). *색채학개론*. 서울: 미진사, pp.104-105.
- 28) Sweat, S. J., & Zentner, M. A.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R.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Lexington Books.
- 29) 김윤경, 강경자 (2003). Op.cit., pp.395-406.
- 30) 한국표준색표집 (1991). 공업진흥청/ 한국방송공사.
- 31) 김복숙 (1999).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 32) 윤소영 (2001). Op. cit., pp.21-22.
- 33) 이연희 (2001). Op. cit., pp.57-58.
- 34) 정혜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28(3/4), pp.460-471.
- 35) Ibid., pp.460-471.
- 36) 이연희 (2001). Op. cit., pp.85-88.
- 37) Ibid., pp.85-88.
- 38) 김윤경, 강경자 (2003). Op. cit., pp.395-406.

- 39) 정수진, 강경자 (2006). Op. cit., pp.69-78.
- 40) Ibid., pp.69-78.
- 41) 김윤경, 강경자 (2003). Op. cit., pp.395-406.
- 42) 송미영, 박옥련, 이영주 (2005). Op. cit., pp.1-11.
- 43) 이주현, 조공호 (1995). Op. cit., pp.747-764.
- 44) 윤소영 (2001). Op. cit., pp.21-22.
- 45) 정해선, 강경자 (2004). Op. cit., pp.460-471.
- 46) 정수진, 강경자 (2006). Op. cit., pp.69-78.
- 47) Hassin R., & Trope Y. (2000). Facing Faces: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pp.837-852.